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며칠 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 무렵이면 온갖 색깔의 봄꽃이 피고, 그래서 불자들은 “하늘에서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꽃비가 내린다”는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데다가 윤달까지 끼어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화려한 봄꽃보다는 오히려 짙은 녹음이 어울리는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자 책 두 권(『탄허록』·『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을 보내드립니다.

『탄허록』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명하신 탄허스님께서 생전에 기자 대담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민족과 인류 문명의 미래’를 전망하여 대중들이 ‘삶의 지표’를 확립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셨던 주옥같은 글을 정선한 책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예지(叡智)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책’이라는 보통명사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거의 ‘경(經)’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제 자신 『탄허록』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불교를 넘어 유학(儒學)과 노장(老莊)을 넘나드는 탄허스님의 지식과 탁월한 안목에 감탄하고 더불어 제 부족함을 경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난 느낌과 감회가 어떠실지 그 생각을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은 전국의 사찰 공양간 풍경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사찰 공양간에서의 저자의 체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고, 따라서 ‘소속지족’의 삶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담겨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찰과 불교문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내는 자신만의 ‘사진 철학’을 갖춘 사진작가의 멋진 사진이 더해져, 사찰 음식의 은은한 맛과 함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탄허록』을 통해 인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가꾸고,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한결 더 건강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